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 산업용 전기료 6.4% 인상

지난달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다. 용도별 인상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값싼 전기를 사용한다고 지적된 산업용은 인상폭을 높이고, 주택용은 인상을 최소화 했다.

인상폭을 보면 산업용이 6.4%, 일반용이 5.8%, 주택용이 2.7%로 인상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도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8% 이상 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수용가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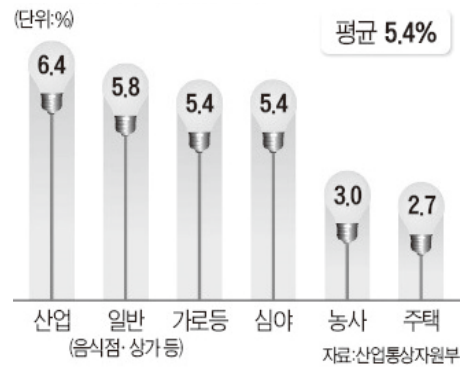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 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현재 5000kW 미만에서 고압A 전체로 확대했다.

또 고압B·C 고객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4~17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해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편을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했다.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확대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했다. 전통시장의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는 연장했다.



## 한전, 대대적 자구노력 펼친다

만성적인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강남지사 사옥 등 11건을 매각하기로 했다.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한전KPS와 한전기술의 일부 지분은 물론 LG U+와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 등 고강도의 자구책을 가동한다.

한전이 이번에 내놓은 자구책은 자산매각 등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이다.

먼저 개발가치가 높은 알짜 업무용 부동산을 11건이나 매각한다. 서울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서울 동일로 동부지사 사옥부지, 서울 순화동오피스, 변전소 여섯 곳(의정부·덕소·화양·북광주·안양·부천), 물류창고 세 곳 등이다. 부장 이상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고 임직원(노조원 제외)은 2013년도 성과급은 10~30%, 2014년도 성과급은 50% 이상을 반납한다. 2014년 기준으로 사장은 월 급여액의 36.1%, 임원은 27.8%, 부장 이상은 14.3%를 매달 삭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전 직원 연수시설인 무주 덕유산 리조트 회원권도 매각하고 자회사인 한전KPS·한전기술 등의 지분 중 대부분을 팔기로 했다. 아울러 LG U+, 한전산업개발 출자회사 지분도 매각할 계획이다.

자산 매각 이외 불급사업 축소, 설계기준·공법 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용도 줄인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용을 최소화해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한전은 '재무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사장 이외 분야별로 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정부가 '한국판 북미전기신뢰성기구(NERC)'라 할 수 있는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전력시장을 통합 감시·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력계통감독원은 특히 전력시장의 규정을 위반한 발전회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져 민간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연내 중립적인 국가 전력망 관리·감독기구인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 편성권을 준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전력계통감독원은 국토가 좁아 촘촘하게 얽혀 있는 국내 전력망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각 지역에서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균형적으로 생산하고

## 금감원처럼... 전력시장 감독원 만든다

한전KPS 신임사장에  
최외근 본부장 선임



한전KPS 제12대 사장에 최외근 한전KPS 경영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한전KPS는 지난달 8일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최 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외근 한전KPS 경영관리본부장은 1953년생으로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전 성남지점장과 노무처장 등을 거쳐 한전KPS 경영관리본부장을 맡아 왔다.

최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한전KPS는 불모지와 같았던 발전설비 정비 분야에서 숏한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정비기술을 토대로 발전 정비 산업의 명가를 만들어 왔다”며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확대 등 많은 고난과 역경이 산재해 있지만 강한 역량을 갖춰 희망찬 내일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도서·벽지에  
안정적 전기공급

한국전력은 지난달 14일 한전 인천지역본부 강당에서 도서·벽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백령도 발전소 설비증설) 준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아래 진행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등 6개 도서의 총 2만 2800kW 발전설비 증설 공사 준공 및 전기가 공급되지 않던 전북 고창군 내죽도, 강원 홍천군 삼년대마을 등 24개 지역 183가구의 신규 전기공급을 기념하고자 개최됐다.

백령도는 올해 총 79억 원을 투입, 기존 9000kW(1500kW×6대)에서 6000kW(3000kW×2대)를 증설하여 총 1만 5000kW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 고창군 부안면 내죽도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 해저케이블을 설치, 안정적 전기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한전이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건물 에너지관리에 본격 나선다. 우선 일부 지역 사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이를 전국 각 사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달 8일 일부 사옥을 대상으로 신재생발전원(태양광)과 ESS, 건물 자동화시스템(BAS), 스마트분전반, AMI, EV충전기 등이 연계된 지능형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시범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경기북부본부 구리남양주시사 사옥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20kW)를 설치해 사옥내 전력을 공급하고, 50kW 용량의 ESS를 설치해 심야에 전기를 충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시켜 피크전력을 줄이게 된다.

또 BAS, 스마트분전반, AMI와 연계된 BEMS는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제어, 대기전력 차단, 조명제어 등으로 에너지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 에너지사용 10%, 피크전력 6%, 전력사용량을 10% 줄여 연간 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이번 BEMS 시범사업을 통해 한전 사옥을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범 모델화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소비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건물 에너지 관리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 모델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이 성과공유금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한전, ESS활용

BEMS 사업추진

남동발전, 성과공유금

사회공헌활동에 활용



**남부발전 - 두산중,  
해외시장 공동 진출 추진**

남동발전(사장 허엽)은 지난달 2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3 동반성장 페스티벌'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과공유금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엽 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해 이상경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과 50여 개 협력 중소기업 대표, 김재구 사회적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동발전은 성과공유금 7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전달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해외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사장 이상호)과 두산중공업(사장 한기선)은 지난달 11일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해외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사는 가스터빈발전 복합화 운영기술과 주기기 제작 노하우를 접목해 미주와 중동 시장 등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터빈 복합화 사업은 기존 가스터빈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증기터빈을 추가 설치해 복합발전소화 하는 발전설비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다.

최근 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90여 개 발전소와 1100여 대의 가스터빈 단독 발전소가 발주됐고, 30여 개의 발전소에서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발전설비의 12%에 해당하는 9200MW 설비용량을 보유한 남부발전은 GE, MHI, 지멘스 등 다양한 가스터빈 기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 발전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은 복합화력 열효율 53%, 설비용율 80% 이상의 발전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검증된 STG/HRSG 제작 역량과 더불어 풍부한 EPC 수행 실적을 자랑한다.

**동서발전, 국내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준공했다.

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지난달 8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화력에서 동해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 최대용량인 30MW급으로 순환유동층 방식이며, 화석연료의 혼소 없이 목질계 고형연료만으로 연소한다.

연간 발전량은 7만 3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22만 3380MWh 규모다.

이 발전소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탈황·탈질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연료저장동을 옥내화했다.

또 목재자원의 발전연료 사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목재산업계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100% 임지 잔재와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삼척시 폐광지역에 발전소 연료공급용 우드칩 공장을 건설해 실직 탄광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산림부산물 수집에 필요한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또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연료 조달에 이르기까지 관련 회사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정부 국책 과제로 선정돼 중소기업과 인하대학교, 동서발전이 공동으로 바이오매스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를 수행했으며, 포스코건설, 지오네트, 인하대학교가 협업해 건설·준공함으로써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인도네시아 발전회사와 기술교류에 나섰다.

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지난달 11일과 12일 각각 인도네시아 발전회사인 IP(Indonesia Power)사, PJB사(Pembangkitan Jawa Bali)와 국제 공동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IP사는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지역 내 약 90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총 전력공급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수라바야에 본사를 둔 PJB사는 그레스크(Gresik) 발전소를 포함해 6개 발전소(약 6500MW)를 운영하고 있으며, O&M, EPC, 발전플랜트 컨설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서발전, 인니 발전회사와  
기술협력 협약**

**슈나이더 일렉트릭 UPS  
최고 강자 입증**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3사는 신규 발전소 개발과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정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소 운영·정비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의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Best Practice Awards)'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동남아시아 지역 '올해의 UPS 벤더', '올해의 UPS 서비스 업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는 관련 산업에서 세계 정상급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제품과 서비스 혁신뿐 아니라 시장 진입 능력, 소비자 가치 부분 리더십, 성장 전략 및 실행을 평가해 결정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UPS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키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수상한 '올해의 UPS 벤더' 부문은 개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올해의 UPS 서비스 업체' 상은 서비스 지원 기반 시설 및 소비자 가치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 두 부문에서 모두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전 공정 국산화 달성**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의 핵심기술인 셀(Cell) 제조공장을 건설함으로써 100% 국산화된 기술로 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달 22일 포항 연료전지단지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셀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건설하게 될 셀 제조공장은 2만790m<sup>2</sup>(약 6300평) 규모로 연간 70MW의 셀 생산이 가능한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며,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셀 공장 건설 투자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연료전지 시공 및 정비 등의 서비스 기술을 시작으로, 2008년 미국 FCE로부터 핵심 기술을 차례로 이전 받으며, 포항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12년 11월, FCE와 연료전지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번에 셀공장 건설에 착공함으로써 포항에 연료전지 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단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셀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연료전지 생산단가를 20% 가량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초로 설계, 제조, 설치까지 연료전지사업 전 부문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제2의 밀양사태로 비교되던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탑 건설사업 가압식을 조환익 사장과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현지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포천시지역 현지에서 거행하였다.

본 사업이 집단민원, 소송, 공사중지 등 10년간의 수많은 민원을 극복하고 적기에 가압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현재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력설비 건설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이 사업은 765kV 신가평변전소(가평군 설악면 소재)와 345kV 신포천변전소(포천시 신북면 소재)를 연결하는 길이 65.2km, 첩탑 175기, 총사업비 1천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평군, 춘천시, 홍천군, 포천시 등 4개 시·군을 경과한다.

한전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수백차례 주민설득과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였고, 주민들도 대승적 이해와 합의 노력 등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일반 공법에 비하여 작업장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한 심형 첩탑기초 방식 적용과 관련지지물 설치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요즘 민원인들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였다. KEA

**한전,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가압식 진행**